

## 성경의 복잡함: 설교의 다채로운 여정

Gregory K. Hollifield

18세기 영국 작가이자 미술 역사학자, 정치가인 호레이스 월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삶은 희극(회복)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비극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양쪽 요소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책 자체는 웅장한 희극(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이 얽힌 희극(회복)이기도 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많은 일이 절망적으로 잘못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모호함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오직 희극(회복)만을 보는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에 다가가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통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겪은 고통은 그 사람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각 사람에게 특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를 간과하고, 듣는 이들의 존재론적 고통을 "진짜"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진짜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삶의 의미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제대로 듣고 공감하기보다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간단히 넘겨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논리적이고 옳을 수 있지만,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설교자는 자신의 개성과 영적 은사에 따라 치료적이거나 예언적인 성격의 설교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의 비극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성격이나 특별한 재능에 따라 사람들을 돕는 방식(치료적)이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는 방식(예언적)으로 설교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거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드러내어 강하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의 모호함에 민감한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궁금해 하게 만드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복잡한 부분에 잘 공감하는 설교자는 청중이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청중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왜 이렇게 헛갈리지?" 또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설교를 합니다. 즉, 설교가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사람들에게 고민할 만한 주제를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을 감싸고 있는 희극(회복)이자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경이 슬픈 이야기와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듯이, 설교도 그 내용에 따라 희망을 주거나 회복을 이야기하거나,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